

한라시론



김 양 훈
프리랜서 작가

제주도 보훈청이 11월 중 제주 국립 묘지 착공 시점에 맞춰 박진경 대령 추도비를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이 추도비에는 ‘공비 소탕에 불철주야 수도위민의 충정으로 선두에서 지휘하다가 불행하게도 장렬하게 산화하시다’라는 내용이 써있고, ‘이에 우리 삼십만 도민과 군경원호회가 합동하여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단갈(短鵠)’을 세우고 추모의 뜻을 천주에 기리 전한다.’는 건립 취지가 적혀 있다.

제주 4·3 초기 평화적인 해결을 주장하던 제9연대 김익렬 중령이 강제

비석의 품격

해임된 후, 미군정은 초도화작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새 연대장으로 박진경 중령을 임명했다. 그의 연대장 취임사를 보자. “우리나라 독립을 방해하는 제주도 폭동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키더라도 무방하다.” 당시 제주의 인구는 30만이었다. 그는 취임사 내용대로 토벌작전을 밀어붙였고, 그 공로로 대령으로 승진했다. 진급 축하연에서 마신 술에 취해 잠을 자던 그는 강경 작전에 반대하는 부하의 총탄을 맞아 비명 한번 못 지르고 죽었다.

6·18 의거를 주도한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하사는 미군정하의 고등군사법원에서 내린 사형선고에 따라, 정부 수립 후 집행된 대한민국 제1호 사형수라는 딱지를 달고 총살됐다. 한편 1952년 11월 7일 제주 도내의 각 기관장과 유지들은 전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박진경 추도비를 세웠다.

장면을 바꾸어, 모슬봉 기슭 공동묘지, 신축민란의 장두인 이재수의 어머니 봉분 앞에 조그맣고 소박한 백비가 서 있다. 모서리가 둥근 말각형 묘비다. 앞면에 제주영웅 이재수 모 송씨묘(濟州英雄 李在守 母 宋氏墓)라 새겨있고, 1940년 3월 대정골 안성리·인성리·보성리 세 마을 주민 일동이 세웠노라 쓰여있다. 반란의 괴수로 죽임을 당한 이재수는 무덤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아들 이재수를 잃고 상심했던 어미의 심정을, 이순옥은 그가 발간한 ‘야설(夜雪)-이재수 실기’에 이렇게 남겼다. “유명무실한 제주목사의 비석은 곳곳마다 세워져 있건만 어찌하여 도탄에 빠진 일반 백성의 원한을 풀고 인정을 펴준 나의 아들의 비석은 없느냐.” 대정골 사람들은 어머니 송 씨가 세상을 떠나자, 어미묘비에 그의 이름을 ‘제주의 영웅’으로 새겨 추모했다.

박진경 추도비에 이어 송 씨의 백비를 말합은 비석의 품격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품격이란 모를지기도 딱적인 요소가 포함된 개념이다. 커다란 돌에 위민(爲民)과 충정(忠正)이라 새겨 억지로 추도한들 무슨 소용일까! 다만 네 글자 ‘제주영웅’이라 새긴 조그만 묘비, 감동이다.

보훈청에 전화를 걸어 박진경 대령 추도비를 폐기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다. 대답은 국립묘지 착공으로 다른 비석과 함께 옮길 뿐이지 추도비 존폐에 대한 그간의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려니, 영혼이 없는 무색 무취한 응답이 놀랍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 비석은 어디 외진 구석에 숨길 것이 아니라, 제주4·3평화공원으로 옮겨 ‘반면교사’의 표정으로 삼아야 한다. 이념과 사상의 문제가 아니다. 잘못된 과거의 기록을 고치는 일이고, 또한 해원(解冤)의 노력이다.

사설

애쓰게 따온 예산, 집행률 최대한 높여야

제주도의 올해 재정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10월말 현재 가쓰스로 3분의 2를 넘겼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 재정집행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주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내 재정집행률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산집행 발동에 불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재정집행 실적(도+행정시+공기업)은 68.94%로 전년 같은기간(70.04%)보다 1.1%p 낮습니다. 전국평균 재정집행률(69.4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청 실국과 기관별 집행현황을 보면 행정시에 비해 제주도 분청이 매우 부진합니다. 전체 집행 대상액의 34.8%를 차지하는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사업비의 경우 집행률은 각각 63.3%, 56%에 그칩니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 내부 경비와 국고보조반환금 및 과오납금 집행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년과 달리 예비비

(835억원)가 집행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산집행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단 제주도의 예산집행이 올 해만 저조한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집행하지 못하고 넘기는 예산이 무려 1조원이 넘는 정도로 심각합니다. 최근 4년간 예산 이월액(잉여금)을 보면 2015년 1조 152억원, 2016년 1조2904억, 2017년 1조520억원입니다. 지난해는 8283억원으로 소폭 줄어든 건 했지만 여전히 적잖습니다. 이처럼 불용액으로 처리되거나 이월되는 사재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큰 일입니다. 급기야 원화통지사가 엇그제 재정집행 90%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재정이 어렵다고 내년도 각종 사업과 행사비를 깎으려 하고 있습니다. 애쓰게 따온 예산도 다 쓰지 못하면서 예산절감 명목으로 삭감한다면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최저임금도 못받는데다 부당대우까지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이른바 열정페이에다 부당대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는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빚낸 말입니다. 고용주들이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현실을 악용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10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합니다.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지난 7월말부터 10월초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아르바이트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노동현장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9.8%가 최저임금(8350원)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임금(9700원) 미만의 시급을 받는 비율도 44.8%에 이릅니다. 게다가 조사대상 중 279명이 일을 하면서 부당한 경험을 한 적

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참고 속삭이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도와 기관을 통한 대응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 대응방안을 잘 모르는 탓이 큼니다. 또다른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46%) 정도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전환이 시급합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보완하는 등 지역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편집국 25시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김 현 석
행정사회부 기자
ik012@halla.com

최근 기행취재로 제주도의 우도, 서울북촌한옥마을, 부산감천문화마을 그리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다녀왔다. 주제는 최근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잉 관광’이란 용어로 통용된다. 서울북촌한옥마을과 부산감천문화마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관광지다. 이들 지역에서도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서울북촌한옥마을의 경우, 서울시와 종로구청 등이 2017년 실시한 ‘주거지역 관광명소 주민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6월부터 ‘북촌마을 주민 피해 최소

화를 위한 8대 대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부산감천문화마을은 북촌마을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었다.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관광 수익금을 지역 주민들의 부족한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면서, 관광 수익금을 지역 주민들에게 최대한 환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제주지역은 2016년 관광객 수가 정점을 찍으면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객이 급격히 늘어 지하수 고갈, 교통혼잡, 상하수도·쓰레기 처리 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제주가 오버투어리즘을 겪고 있다는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무 대책 없이 마냥 손 놓고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유비무환의 자세로 점점 다가오는 ‘오버투어리즘’을 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뉴스-in

첫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준비 분주

제주 정책방향 제시 기대감

○…제주도가 올해 처음 열리는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로 분주.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엑스포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UD)의 실제적 모델을 보여주는 전시를 비롯해 학술세미나와 토론회, ‘UD-스팟 시민행가단’ 운영과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될 예정.

이번 엑스포를 통해 UD 저변확대 및 UD관광 확대를 위한 제주 정책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

오은지기자

통합돌봄 업무 교육 실시

○…제주시가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창구 복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눈길.

시는 5일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장애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

창구에서 초기상담 및 통합사례관리 절차 등 역할과 통합돌봄사례관리 신청 절차에 따른 지침을 만들어 업무 공유와 의견을 수렴.

고숙희 복지위생국장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독립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고대로그자

인형극으로 만나는 항일운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도내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독립운동가들이 1919년 3월 조선 미망동산에서 시작해 4차에 걸친 만세운동으로 일제에 항거한 내용을 담은 인형극 ‘꽃님이와 미망동산’으로 학생들이 제주의 항일운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공연을 관람한 한 교사는 “모두가 하나 됐던 만세 함성을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에 연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

김지은기자

제주도정 소식

최근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A형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이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되었으며 안정성이 확인 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 공모분야

○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등록 및 지정) 후 1년 이상 된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업체로 관광객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 관광지, 교통(전세버스, 렌트카), 숙박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및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 미인증 업체 제외), 여행업(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음식점

□ 신청서 접수기간 : '19. 10. 29(화) ~ 11. 8(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064-741-8744) (주소)우)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65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영평동 2170-4)

· 팩스 : 064-742-8865

· E-mail : bjs0183@naver.com

□ 접수방법 : 내방 및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064-741-8744)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타기관입법/고시/공고” 게시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www.visitjeju.or.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양홍씨 금순(향년 8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7일

아 들 김광섭 며느리 윤말순
우석 조은숙
경섭 유은희
동섭 조주영

분실 공고

● 분실물

제주 유폴리아 국제뷰티케어센터 분양계약서, E-B2동 108-1호 (서귀포시 서호동 1605)

상기 계약서를 분실하였기에 분실물에 대한 무효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위 공고인 한 명 준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테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같이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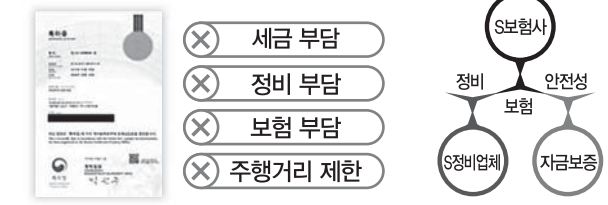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켜주세요!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됨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월유연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가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국내최초 전세렌터카 | 1인당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그랜드보청기

가을맞이대축제

방문고객 배터리 25,000원→15,000원

삼촌들 혼자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제주도내 보청기 파격할인!!

타사 보청기 보상판매 서비스

무료 청력검사 및 방문서비스

고급 보청기 1+1(하나더드림 행사)

모든 보청기 A/S 및 무료점검 서비스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지원금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 그랜드보청기

네이버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사거리 동쪽 100m 행복빵집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